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7월 31일 (제85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편견을 버려라

영국의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은 로망을 무조건 싫어한다. 이 사실을 안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어느 날 파티를 열고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을 초청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즈음에 그는 말했다. “여러분! 제가 귀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로망의 작품입니다.” 그러자 다들 혹독한 비평을 해대기 시작했다. 바로 그 때 버나드 쇼가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은 로망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러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이 편견(偏見)이다.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균형감각을 잃게 하는 것이고, 내 눈에 색안경을 쓰는 셈이다. 그래서 편견을 갖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된 시각으로 남을 정죄하게 되고, 손가락질 하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그랬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요1:46)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 만물이 다 빨갱게 보인다. 내가 빨간 안경을 벗기 전에는 절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마7:5)고 말씀하신 것이다.

치우칠 편(偏), 이것은 좋지 않다. 편애가 싸움을 일으킬 수 있고, 편식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고, 편파적인 판정이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한쪽으로 기우는 편향적인 성향을 버려야 한다. 이는 노를 한 쪽 방향으로만 젓는 것과 같고, 날개 한 쪽이 부러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생의 아들이란 편견을 깨니 입다로 인해 전쟁에 승리했고, 고아라는 편견을 벗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국가를 건졌다. 이렇듯 편견을 깨면 세상은 달라진다.

매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눈을 갖자. 그러면 잡초도 꽃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결심하라, 목표를 정하라!

“존경하는 총회장 목사님! 다른 강사 세우지 마세요. 그들도 총회장 목사님께 은혜 받고 잘된 분들인데 왜! 강사 세우시려 하십니까? 우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총회장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중고등부도 직접 해주실 것이죠? 와~좋다ㅎㅎㅎ 아~신난다.”, “총회장 할아버지, 목사님 이번 수련회에 영어도 가르쳐주실 거지요? 넘 좋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를 정하라’는 것이다. 화살을 쏘도 과녁(목표)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목표가 생기면 아울러 롤 모델도 생기게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화한 것처럼. 그리고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성공은 선택과 집중에 있단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들이 비웃든 말든, 남들이 미쳤다 하든 말든 목표를 크게 잡아라. 비록 내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야 한다는 것이다. 돌베개를 베고

을 이루라’는 이시대 목사님의 설교와 성령세례가 이어졌다.

이튿날 총회장 목사님은 ‘자기 것을 찾아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에 맞게 사람을 만드셨단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 적성을 주셨지. 그런데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내 것도 아닌데 탐하고 그것을 쥐고 있으니 인생이 힘들고 능률도 오르지 않는 거란다. 발이 손이 될 수 있겠니? 발은 발이야(고전12:14~19). 민물고기는 민물에 살아야지 바다에 가면 죽는단다. 또 작은 종지는 장독대의 큰 장독을 부러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2016. 7. 25~27, 장성 예수중심교회)

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에서 25일부터 진행된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는 이들의 바람대로 교육부 담임이신 이초석 목사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셨다.

“나는 31년 전에 롤 모델을 세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 분이 하신 대로 귀신을 쫓았고, 그 분이 하신 대로 기도를 습관화했다. 그리고 ‘세계교구’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념하고 집중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귀는 막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 그랬더니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애들아, 나는 너희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너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그러려면 오늘, 아니 지금 결심해야 한다. ‘I decide!’, ‘어떤 사람이 되리라!’,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리라!’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목표(타겟)

잘못정 거부 꿈의 꿈 아깝처럼 말이다. 하나님도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지 아니(시81:10).

애들아, 내 발은 내가 가꾸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드는 거란다. 그러니 오늘 결심해라.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면 너희의 2, 30년 후는 멋지고 아름다울 것이다.”

약속대로 설교 후에 영어강의가 이어졌다. 목사님은 고양어도 2개 국어를 해야 쥐를 잡는 세상인데, 글로벌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영어와 중국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시며, 이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경배와 찬양, Power I&G와 미션 서바이벌, 그리고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내세는 영원하다. 그래서 내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인생이 더욱 중요함은 이생에서 내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확신

워하지만, 장독이 주인의 얼굴을 얼마나 보겠니? 그러나 종지는 밥상에 올라 주인을 매일 볼 수 있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 너의 단점을 보완하려 말고 자기의 장점을 살려 키우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되는 거란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듯, 작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자라도 깨끗하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 신단다(딤후2:20~21).

애들아, 음식도 내게 맞아야 몸에 이롭고, 옷도 내게 맞아야 멋이 나듯, 직업도 내게 맞는 것을 골라야 인생이 신바람 나는 거란다. 그러니 자기 것을 찾는 자들이 되라.”

훈신을 다해 최선을 다하신 목사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실천하여 각 분야에서 주목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기도원 하계산상집회

8월 첫째 주 ~ 셋째 주 (8월 1일 월요일 ~ 8월 18일 목요일 저녁)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5:1~13)

하나님께 슬기롭다 인정받은 처녀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왜 다섯 처녀를 슬기롭다 했는지 2가지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다섯 처녀는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상사태가 생길 것까지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련하다 청함을 받은 다섯 처녀, 그들이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잘못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딱 맞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 기름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거기에서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슬기롭다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준비할 때는 철저히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적당히 준비하면 여러분이 목표를 못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었을 때를 소망하고 꿈을 꾸지만, 최악의 상태도 대비하고,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참 유난도 편다. 그 때 되면 신랑이 어련히 안 오실까봐 극성을 떨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유난 떨고 기도하고 난리네. 그 정도면 들림 받지.'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들림을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지나치게, 철저하게, 주도면밀하게,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준비도 빠듯하게 해놓으면 힘듭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쓸 거 다 쓰면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고생합니다.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거니까 비상사태가 와도 거뜰히 이길 수 있게 해놓은 사람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분명한 사람이 되라

'기회는 먼저 잡는 자가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아무나에게 안 잡혀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자들에게는 기회가 안 옵니다. 세상에 좋은 직분이나 직위나 명예로운 자리는 그네들이 다 차지하고, 적당히 준비한 자들은 나머지 허접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이루려면 넉넉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성령까지 줘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 겁니다. 철저히 넉넉히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않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자마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더 준비했습니다. 그 때 바나바가 초청해서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대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조선업체, 해운업체가 사양길에 들어섰다고 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만일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경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슬기로운 기업, 슬기로운 CEO가 되었을



총회장 이초석 목사

텐데 아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서 국무총리 대신의 직책을 받고는 나가서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성경에 보면 적당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준비했다고 창세기 41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기에 남도 도와주고 가난한까지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헤미아가 52일 만에 성곽을 준공한 것도 그가 철저히 점검하고 치밀하게 계획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도 교육국 담임목사가 되었기에 수련회 준비기간에 준비하러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철저히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선조 때에 울곡 이이가 북쪽에서 계속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병사 십만을 양성하자고 합니다. 선조가 그 말을 듣고 일본으로 두 사람을 파견하고는 정탐하고 오라 합니다. 그러나 두 사신의 의견이 달라 조정은 당황했습니다.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으니 서둘

러 전쟁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성일은 침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급한 대로 몇 가지만 대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조총을 비롯한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것이 1592년의 임진왜란입니다. 그 때 만일 10만보다 많은 20만이 넘는 대군을 양성했다라면 침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핵무기가 날아올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들림 받겠지'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걸요? '꼭 이것이야 해'가 되

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면 미련한 처녀들 꼴 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그래야 합니다. 일류대학 안 가도 되고, 대기업 안 들어가도 되지만, 영적인 문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과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 그 나라는 영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넉넉히 하늘에 올라갔고, 그의 자손을 통해 열왕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죄에 대한 양심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왜 그들을 슬기롭다 했을까요? 그들은 기름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 명의 처녀들이 졸고 있을 때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여벌의 기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이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마25:9)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슬기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처녀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독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줬더라면 그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일은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써 준비한 것들을 결정적인 계기가 왔을 때 쉽게 나눠주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취해 기분을 냅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선심을 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독한 거 같지만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심 쓰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누가 보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 7년 동안 철저하게 넘치도록 준비한 요셉이 곡식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절대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기주의자입니까? No. 그는 이타주의자가 되기 위해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나라를 다 살리고, 백성도 살리고 애굽을 대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가 자기 살겠다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만 결국 자라서 사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요. 목적을 위해 값싼 인정은 사양해야 합니다. 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베스 정권 당시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를 썼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도 없으면서 선심만 펴평 쓴 결과입니다. 주님도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이니 들림, 상급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 분이 사랑이신지라 막 퍼줄 거 같지만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잠 3:27),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고후8:13)라는 말씀을 잘 읽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없는데 퍼주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유여한 것으로 돕는 겁니다. 더욱이 천국 가는 것은 절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달아 슬기로운 목사요, 슬기로운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제 20회 전국 중등부 연합수련회
(2016. 7. 25 ~ 27)



:: 목상노트 ::

:: 생활속의 잠언 ::

나는 ‘나의 길’을 간다

2003년 당시에도 공무원이란 직업은 인기 있는 직종이어서, 내가 공무원이 되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다. 그러나 막상 일을 하고 보니, 직장일이 도무지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평소 틀에 매인 것을 제일 싫어했는데, 이 직업은 뭐든지 지침대로 해야 되고, 위계질서가 철저하여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기만 했다. 무척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갑상선 종양까지 생기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1년을 버틴 이유는 단지 남들이 그 직업을 선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듯 나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힘들었다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적성(궁합)이 맞아야 신바람 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그 직업이 내 적성과 기질, 성향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그 일이 그렇게까지 힘든 것은 아니었는데, 유달리 내가 못 견디게 괴로웠던 까닭은 무엇이였을까?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은 목회 30년을 했는데, 당신께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쉬웠다고 하셨다. 나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목사님 목회에 풍파와 시련이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끊임없는 시

비 끝에 결국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약간의 틈도 보일 수 없는 자리에 서 계시는 목사님께서 그 길이 쉬웠다고 하시다니! 나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의 길은 쉬운 길이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땅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길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시밭길이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쉬운 길이구나! 내가 공무원이 그리 힘들었던 것은 단지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했기에 고달팠던 것이다. 나의 삶이 아닌 남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에 끊임없이 흔들거렸고 불안정했던 것이다. 내가 아닌듯한 느낌이랄까. 만약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소음들을 차단했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리라. 이제 나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의 마지막 대목을 바꾸어 부를 것이다. ‘주의 길’을 ‘나의 길’로. ‘나의 길’이 바로 ‘주의 길’이기에...

박소향

bp650624@naver.com

딸의 이삿날

지난 7월의 어느 날,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렸고,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이 폭포처럼 비가 쏟아졌다. 그 날 우리 딸은 결혼 6개월 만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사를 했다. 결혼할 무렵 시댁의 도움으로 전셋집을 마련했지만, 2년 후 전세가 만기되는 시점에 딸 내외는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전세자금 준비나 이사문제로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로 작정하고 수개월을 기도했다. 어느 주말 오후, 기도와 고민 끝에 딸아이는 졸업논문과 전세 만기가 겹칠 것을 염려하며 이왕에 가는 것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딸의 말을 듣고 평소 가까이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께 지금의 전세금으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냐고 연락을 드렸더니, 지나는 길에 둘러보라고 하셨다. 혹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동안의 기도가 주님께 열납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찾았다. 사장님은 한강 조망이 좋은 곳을 소개해주시면서 급매물로 나온 곳이라 시세보다 훨씬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셨다. 그러나 딸아이 내외는 아직 계약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계약금은 자신의 돈으로 대신 지불할 테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다. 평소 딸아이가 오가는 길에 항상 밝은 얼굴로 살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예상하지 않게 보셨고 자신의 딸처럼 어

여뻐 여기셨다고. ‘내 딸’ 집 사주는 마음으로 계약금 수천만 원을 미리 선뜻 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결혼식 날도 직접 오셔서 축하까지 해주셨으면서 급매물로 나온 집을 천만 원을 더 깎아 주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딸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딸아이는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못했던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사랑의 주님께서서는 이삿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악천후까지 선물로 주셨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울리는 악천후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생글거리며 인부들을 걱정하고 그분들을 챙기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인생을 살다보면 이삿날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독한 시련의 순간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혹시 그런 날이 오더라도 잠깐의 고통 뒤에 올 아름다운 축복의 공간 - 천국 같은 그들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축복의 이삿날, 딸 내외는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경험을 했다고 믿는다. 이번 딸아이의 이사를 통하여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미소는 천만금보다 더 값어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했듯이 오늘도 나의 곁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잊지 말아야겠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 Global Study ::

☞ 세상사 여유가 없는 자는
쫓기는 사냥감이 되고 마는 법이다.
Those without calmness in them will be chased.
世上万事上没有有余之心者，只会成为猎物

☞ 너는 사냥꾼이 될지언정 쫓기는 사냥감은 되지 말라.
Rather be a hunter than the hunted.
即使你要成为猎人，也不要成为猎物

내 속 때가 낀 것 누가 알라
덕지덕지 짝이 바르며
이 꽃 저 꽃 치렁치렁 옷매무새 걸치며 벌거벗은 여인과
멧 멧 멧 청솔 타는 연기 속에 맞장구치누나

가면 탈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거짓의 치장과 변장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라 요란 떨지만
어찌하여 파리 떼 윙윙 소리와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눈 멀고 귀 먹고 코 막힌 타락한 인생들이여!
향기 없어
꺾어도 때려도 찢러도
감각 잃은 양심이 병든 자여
계곡의 폭포소리
통곡이 없으니 어둔 밤 더울고 짜증나는 세상이 되었구나

언제나 찬바람과 함께 올 내 친구 진실과 정직
겨울 지나야 새봄과 함께 꽃 피며 향기로 찾아오겠지
벌 나비 찾아오듯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보노라

2016. 7. 21 朋友

내 바람

